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구약성경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구약성경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바로 다음 19장이 209쪽에서 시작하므로 18장으로 보임), 약 201–208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앞 장들에서 살핀 구절들을 돌아봅니다. 그 가운데 어디에도 글로 적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권위가 낮다는 암시는 없다고 확인합니다. 이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근본주의나 17세기 정통주의 같은 후대에 생겼다는 자유주의 쪽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 생각은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 처음부터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거로 신명기, 여호수아서, 시편을 차례로 살핍니다.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의 헌법이었고, 지도자가 밤낮 묵상할 책이었으며, 시편 기자에게는 기쁨과 위로와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이고, 언약은 본질상 말씀을 필요로 하며, 그 말씀이 세대를 넘어 보존되려면 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같은 능력·권위·임재를 지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입니다.

📜 절별 정리

📜 1. 글로 된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만큼 권위 있다

프레임은 앞에서 다룬 구절들을 다시 보면서, 어떤 구절도 글로 적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보다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표 사례는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룩이 읽어 준 두루마리를 귀담아들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의 글을 인용할 때나 시편 119편이 기록된 율법을 말할 때도, 기록된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따라야 할 최고 권위로서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1. 글이라서 권위가 낮아지는 구절은 없다
2. 두루마리를 태운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
3.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개인적 말씀
4. 선지자들도 앞선 기록을 권위로 인용

> **예레미야 36:1-32**
>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태운 일(36:23). 글로 된 말씀을 거부한 것이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었음을 보여 줌
>
> 1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3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4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5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6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

> **시편 119:1-176**
> 기록된 율법을 최고 권위로 존중하는 대표 본문(6절에서 자세히 다룸)
>
> 1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2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

📜 2.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후대에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어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 생겼다고 봅니다. 그들이 꼽는 출발점은 20세기 근본주의, 17세기 정통주의, 중세 스콜라주의, 사도 직후 교부들의 변증, 후기 유대교의 율법주의 등입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디모데후서 3장과 베드로후서 1장이 이 생각을 담고 있다고 보면서도, 그 편지들을 사도 이후의 율법적인 문서로 여겨 가볍게 넘깁니다. 프레임은 이 생각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깊이 새겨져 있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전제한다고 답합니다. 각주에서는 논리 문제를 짚습니다. 어떤 생각을 그것이 나온 시대나 장소 때문에 깎아내리는 것은 '발생론적 오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던 나다나엘의 말과 같은 실수입니다. 프레임은 유럽 신학자들이 성경 무오성을 '미국산' 개념이라며 깎아내리는 것을 자주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것이 1650년 이전부터 이름만 달랐을 뿐 온 교회가 함께 가졌던 견해라고 믿는다고 밝힙니다. 또 설령 기원을 따지는 논리를 받아들인다 해도, 이 개념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룬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반박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1. 근본주의나 정통주의가 만든 개념이 아님
2. 신약 후기 문서의 발명품도 아님
3. 이스라엘 율법에 처음부터 새겨짐
4. 출처로 판단하는 것은 발생론적 오류
5. 기원을 따져도 이스라엘 초기로 올라감

> **디모데후서 3:15-17**
> 비평가들이 '후대·율법적'이라며 밀어내는 본문. 프레임은 이 개념이 이 본문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고 봄
>
> [15]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19-21

위와 같은 취급을 받는 본문. 같은 논지

[19]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요한복음 1:46

(각주) 출처로 가치를 판단하는 오류를 보여 주는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 3. 기록된 언약 문서는 이스라엘의 헌법이었다

프레임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록된 문서가 선지자의 입말보다 더 중요하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식 헌법 노릇은 글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죽어도 기록은 남아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미국에서 성문 헌법이 기본법이듯, 언약 문서는 이스라엘의 기본법이었습니다. 여기서 프레임은 N. T. 라이트를 언급합니다. 라이트는 사도 이후 교회가 성경을 일종의 '상소법정'처럼 대하는 경향을 비판했습니다. 교리와 윤리를 뽑아내고 새로운 주장을 심사하는 판결집이나 규정집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록된 말씀과 거기서 발전한 토라가 실제로 규정집이자 법이자 상소법정 역할을 했다고 답합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 역할 가운데 하나였다는 단서를 답니다. 증거로 신명기 4–11장을 아무 데나 펴 보라고 권하며 여러 본문을 길게 인용합니다.

2. 언약 문서는 이스라엘의 기본법
3. 규정집 역할은 구약에서 이미 했다
4. 단, 규정집은 여러 역할 중 하나
5. 신명기 4–11장 어디를 펴도 증거

신명기 4:1-8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라.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4:2). 이 법이 열방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혜. 기록된 법의 헌법적 지위

[1]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3]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4]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5]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

신명기 6:1-9

대대로 지킬 명령.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문설주에 기록하라. 말씀이 생활 전체를 다스림

[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여호와이시니 [5]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

신명기 6:24-25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과 생명의 길. 법이 언약 생활의 기준

[24]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신명기 7:11

오늘 명하는 명령·규례·법도를 지키라. 반복되는 순종 요구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8:11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 말씀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기록된 문서가 선지자들이 죽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 4. 모세의 말씀이 책이 되고, 여호수아가 그 책을 따르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프레임은 그 안에서 규례, 율법, 명령, 법령, 법도, 말씀 같은 말이 웅변처럼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돌판과 함께 두게 하며, 정기적으로 공중 앞에서 읽게 합니다. 이 일이 끝나자 그 규례는 '기록된 계시', 곧 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책에 기록한 율법대로 행하고 그 책을 밤낮 묵상하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수아도 생애 끝에 백성에게 같은 것을 촉구합니다. 프레임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 되풀이된다는 점도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1. 모세의 설교는 시대를 넘는 영구 요구
2. 기록, 보관, 공적 낭독으로 책이 됨
3. 여호수아의 형통은 그 책을 따르는 데 달림
4. 지도자 교체 후에도 책이 기준으로 남음

> **신명기 31:9-13**
>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 맡기고 정기적인 공적 낭독을 명함. 말씀이 '책'이 되는 순간(언약궤 곁에 두는 장면은 31:24-26에 더 직접 나옴)
>
> 9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칠 년
>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1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 곧 백성의
>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 13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 **여호수아 1:7-8**
>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새 지도자를 다스리는 것은 기록된 책
>
>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5:32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의 출처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명기 28:14

같은 표현.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요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호수아 1:5

프레임이 비교 구절로 제시함(이 표현은 실제로는 1:7에 나옴. 작가에게 참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 5. 시편의 찬양: 순결하고 완전한 말씀

프레임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찬양하는 주제가 시편에 자주 나온다고 말합니다. 시편 12편에서 다윗은 거짓말과 아첨과 억압의 말로 더럽혀진 세상을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을 대비시킵니다. 시편 19편은 앞부분에서 창조 세계에 드러난 계시를 노래한 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다고 이어 노래합니다. 그 말씀은 순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다고 합니다. 시편 78편에서 아삽은 신명기 6장의 명령, 곧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요구를 되새깁니다. 프레임은 이 밖에도 시편 18편, 111편을 비롯해 율법과 계명을 언급하는 수많은 구절을 함께 보라고

1. 세상의 더러운 말과 하나님의 순결한 말
2. 시편 19: 창조 계시 다음에 율법 찬양
3. 율법은 순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다
4. 시편 78: 신명기의 대물림 명령을 이어 감

시편 12:6

일곱 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한 말씀. 거짓과 대비되는 신뢰성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9:7-11

율법의 완전성과 그 효과(소성, 지혜, 기쁨, 밝힘)와 귀함. 기록된 말씀 찬양의 대표 본문

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78:5-8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를 자손 대대로 알게 하라. 기록된 말씀의 세대 전수

5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6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7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신명기 6:6-9

[6]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시편 18:30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함. 비교 구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11:7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함. 비교 구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 6. 시편 119편: 규칙을 넘어 인격적 관계로, 그리고 예배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절이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약속 같은 동의어 가운데 하나를 씁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전함과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일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프레임은 이 시편이 계명 준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편은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말씀은 기쁨이고, 경이이며, 간절함의 대상이자 고난 속의 생명, 슬픔 속의 힘, 소망, 위로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노래하고 천만 금은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프레임은 11장의 논증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 임재이며,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신자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예배의 대상으로 다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장에서 덧붙이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대상은 직접 들린 음성이나 선지자의 입말이 아니라, 율법·규례·계명을 이루는 '기록된 문서'라는 것입니다.

3. 말씀은 기쁨·위로·소망·생명의 원천
4.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처럼 찬양받음
5. 찬양의 대상은 '기록된' 말씀

시편 119:15-16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함. 기쁨의 대상

15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24

주의 증거는 즐거움이자 충고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시편 119:47

사랑하는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함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시편 119:18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 달라는 기도. 경이의 원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20

규례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함의 대상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시편 119:44

율법을 영원히 지키려는 다짐. 온 마음을 다한 헌신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50

고난 중 위로와 생명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28

슬픔 속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119:48

계명을 향해 손을 듦. 예배의 몸짓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119:49

말씀이 소망의 근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 119:52

옛 규례를 기억하며 위로받음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시편 119:54

율례가 나그네 길의 노래가 됨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119:176

이런 고백이 마지막 절까지 이어짐

잃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56:4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함. 말씀이 예배 대상이라는 11장 논증의 근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10

같은 고백의 반복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119:120, 161-162

말씀 앞에서 떨고 경외하며 기뻐함

시편 119:120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시편 119:161-162 161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2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9:2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 말씀 찬송과 나란히 놓임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함. 같은 비교

시편 34:3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편 68:4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편 138:2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함께 높임.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잇는 고리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 7. 언약이 기록된 말씀을 요구한다

프레임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약의 종교는 하나님이 저자이신 기록된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지시하고 명령하며 기쁨의 근원과 예배 대상이 됩니다. 그 말씀이 입으로 전한 예언이나 하나님의 음성보다 권위가 낮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인간 저자가 거룩한 본문에 거짓이나 부정확함을 섞었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식은 창세기부터 구약 거의 모든 쪽에 나타납니다. 1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반응한다'는 패턴이 성경 이야기 전체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은 이것이 다르게 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계시는 언약적이고, 주와 종의 관계에서는 언어가 핵심입니다. 주는 언약 조건을 말로 밝히고, 종은 그것을 받아들여 지키려 합니다. 언약 안에서 말씀은 글이라는 영구한 형태를 얻어 대대로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본질 자체가 기록된 계시를 요구합니다. 그 계시는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같은 능력, 권위, 임재를 가집니다.

1. 구약 종교의 중심은 기록된 말씀

3.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반응한다
4. 언약은 말 없이 성립할 수 없다
5. 언약의 본질이 기록을 요구한다

> **(새 인용 없음)**
> 앞 절의 신명기·여호수아서·시편 근거를 종합하고,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패턴(1장)과 언약 구조로 결론을 냄

"말씀 없이는 언약도 주도 있을 수 없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기록된 말씀(성문 계시)
하나님이 글로 남기게 하셔서 대대로 전해지는 말씀, 곧 성경을 말한다.

구두 예언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입으로 직접 전한 메시지다.

언약
하나님이 주(主)가 되시고 백성이 종이 되어 맺는 관계로, 그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다.

토라
히브리어로 '가르침·율법'이라는 뜻이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거기서 발전한 유대교의 율법 전통을 가리킨다.

상소법정
다툼이 있을 때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이다. 여기서는 교리와 윤리를 판정하는 최종

발생론적 오류
어떤 생각이 어디서, 언제 나왔는지만 보고 그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논리적 실수다.

무오성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틀림이 없다는 가르침이다.

근본주의
20세기 초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 성경의 권위와 기본 교리를 지키려 한 운동이다.

17세기 정통주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교리를 정밀하게 체계로 정리하던 시기의 신학이다.

인격적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자신이 함께 계신다는 프레임의 핵심 개념이다 (11장).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구약 어디에도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권위가 낮다는 암시는 없다.
-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후대 신학의 발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율법과 구약 전체에 처음부터 있었다.
- 기록된 언약 문서는 이스라엘의 헌법이자 지도자의 묵상 책이었고, 성도에게는 기쁨과 위로와 예배의 대상이었다.
- 언약은 말씀 없이 성립할 수 없고, 말씀은 글로 보존된다. 그래서 구약의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8편 ·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나 · '성경이 이르시되'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